

전북현대 “ACL 챔피언 자리는 우리가”

알아인과의 결승 1차전서 레오나르도 2골로 2-1 승리 26일 아랍에미리트 원정 2차전... 비기기만 해도 우승

10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리는 전북현대가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1차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최강희(57) 감독이 이끄는 전북은 지난 19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알아인(아랍에미리트)과의 2016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1차전에서 브라질 출신 공격수 레오나르도의 2골 맹활약에 힘입어 2-1 역전승을 거뒀다.

2006년 이후 10년 만에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전북은 가벼운 마음으로 아랍에미리트 원정을 떠나게 됐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홈앤드어웨이 방식에서 치러진다. 전북은 알아인 원정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통산 2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다.

2차전은 한국시간으로 26일 오후 11시25분 알아인의 홈구장 하지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전북은 지난 6일 K리그 클래식 최종라운드에서 FC서울에 패해 리그 3연패에 실패했지만 분위기를 다잡았다.

먼저 실점했을 때만 해도 2011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전북은 2011년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알사드(카타르)에 패해 준우승에 만족했다. 안방에서 쳐 충격은 더 컸다.

그러나 레오나르도가 있었다. 레오나르도는 0-1로 뒤진 상황에서 내리 2골을 터뜨려 이름값을 했다. 올해 챔피언스리그 9호·10호 골이었다.

후반 20분에 교체로 들어온 베테랑 공격수 이동국은 1도움을 올렸고, 1-1로 팽팽한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감각적인 크로스를 선보였다.

전북은 장신 공격수 김신욱을 선발 임명으로 세우고, 레오나르도-로페즈-김보경-

이재성에게 지원하게 했다. 브라질 듀오 국가대표 삼총사를 전면에 배치하며 공격 축구를 예고했다.

알아인도 맞불을 놔다. 오마르 압둘라흐만을 중심으로 브라질 출신 카이우, 콜롬비아 출신 다닐로 아스프리아를 측면 공격에 세워 빈틈을 노렸다.

오마르는 챔피언스리그 12경기에서 3골 5도움을 기록한 알아인 공격의 핵이다. 특히 준결승 1·2차전에서 연거푸 1골씩 넣었다.

최 감독은 최철순에게 오마르 봉쇄의 특명을 내렸다.

전북이 전반 26분 먼저 기회를 잡았다. 김보경이 페널티박스 오른쪽 모서리 부근에서 상대 반칙을 얻었다.

페널티박스에서 한 보폭 정도 벗어난 지점이었다. 레오나르도가 강력하게 오른발로 찰지만 팔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알아인은 전반 31분 역습에서 카이우가 기습적인 오른발 슈트로 전북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골포스트를 살짝 지나친 낮게 깔린 슈트였다.

전반 0-0 점수에서 알 수 있듯 팽팽한 흐름이었다.

전북이 볼 점유율에서 52% 대 48%로 근소하게 앞섰지만 슈팅은 오히려 알아인이 6개로 전북(4개)보다 많았다. 유효슈팅은 전북이 3개, 알아인이 2개.

후반 들어 양 팀의 공방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됐다.

알아인이 후반 18분 먼저 균형을 깼다. 오른쪽 측면에서 오마르가 준 크로스를 아스프리아가 침착하게 오른 무릎으로 트래킹 후, 왼발슛으로 연결해 전북의 골망을 흔들었다.

AFC 올해의 선수상 후보인 오마르는 수비수 3명을 앞에 두고도 정확한 크로스로



지난 19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2016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결승 1차전 전북현대와 알아인의 경기. 전북현대 레오나르도가 후반전 첫번째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골을 도왔다. 최강희 감독은 선제골을 내준 후, 후반 20분 베테랑 이동국을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신의 한 수였다. 후반 25분 레오나르도가 이동국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중거리슛으로 1-1 균형을 맞췄다. 이동국의 도움이다. 후반 31분 다시 한 번 이동국의 침착함이 돋보였다. 왼쪽 측면에서 골문으로 쏘

아는 김신욱을 보고 정확하게 크로스를 올렸고, 다급해진 알아인 수비가 김신욱을 잡아 넘어뜨리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이동국이 만들어낸 페널티킥이나 다름없었다. 레오나르도는 후반 32분 침착하게 역전골로 연결했다.

이날 전주월드컵경기장에는 3만6158명의 관중이 찾아 뜨거운 열기를 실감하게 했다. /김민근 기자

태권도의 고장 무주

전북도학생체육대회 태권도경기 전국체육대회 대표선수 선발 예선 개최

제53회 전라북도협회장배 태권도대회 겸 2016년 전라북도학생체육대회 태권도경기, 그리고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전북 대표선수 선발 예선대회가 지난 19일과 20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19일 오전 11시부터 거행된 개막식에는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전라북도의회 강영수 부의장, 전라북도태권도협회 최동열 회장을 비롯한 남·녀 초·중·고등학생들과 대학부, 일반부 선수 등 1천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황 군수는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요, 태권도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라고 말했다.

겨루기 종목으로 치러진 제53회 전라북도협회장배 태권도대회 겸 2016년 전라북도학생체육대회 태권도경기, 그리고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전북 대표선수 선발 예선대회는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하고, 태권도와 태권도원의 고장 무주를 알리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홍보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전라북도체육회와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태권도협회와 무주군태권도협회가 주관했으며 군이 후원해 관심을 모았다.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초등부 고학년과 중등부 1위 입상자에게는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북태권도 대표 최종 선발전 자격이 주어지며 남·여(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입상자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전북태권도 대표 선수 선발 랭킹 포인트가 부여된다. 또 남·여(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각 체급별 1위 입상자(팀)에게는 동계강화 훈련비가 지원된다.

/무주=전문선기자

영화 '마스터' 개봉 전 31개국 수출

이이병헌·강동원·김우빈 주연 영화 '마스터'(감독 조의석)가 개봉 전 31개국에 판매됐다.

지난 18일 CJ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마스터'는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이탈리아·홍콩·대만·태국·싱가포르·인도·마카오·말레이시아·터키·필리핀·몽고·인도네시아 등 31개국에 팔렸다. 영화는 다음 달 북미, 내년 1월 홍콩·마카오·대만·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인도네시아, 2월 베트남 개봉도 확정했다.

홍콩 배급사 텔타픽은 '마스터'에 대해, "한국의 가장 매력적인 남자 배우 세 명이 출연하는 것뿐 아니라 각자의 매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역할로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면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대만 배급사 무비클라우드 또한 "이이병헌·강동원·김우빈의 조합이 신선하며, 설 새 없이 서로를 속고 속이는 마스터들의 관계를 배우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마스터'는 조 단위 사기 사건을 일으킨 회계의 사기꾼, 그를 쫓는 지능범죄수사팀장, 그리고 사기꾼의 브레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지난 2013년 '감시자들'(최종 관객 550만명)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조의석 감독이 만들었다.

영화는 12월 국내 개봉할 예정이다.

/뉴스

'최순실 게이트'로 상실된 국민의 마음 또 한번 달래다

'길가에 버려지다' 파트 2 공개... 뮤지션 100명 참여

가수 이승환이 '최순실 게이트'로 상실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길가에 버려지다'의 파트 2가 지난 18일 낮 12시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무료 공개됐다.

이승환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따르면 '길가에 버려지다' 파트 2에는 100여 명

의 음악인들의 목소리가 더해졌다. 장필순, 김광진, 한동준, 이승철, 윤도현, Kyo(이규호), 린, 김종완(NELL), 스윗소로우, 윤덕원(브로콜리너마저), 하동균, 선우정아, 노경보(육수사진관), 빌리어코스티, 배인혁(로맨틱펀치), 옥상달빛이 가창에 참여했다.

특히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날카로운 기타 솔로 연주를 더해 감동을 더했다. 이밖에 피아, 노브레인, 크라이닉, 트랜스픽션, 안녕바다, 내 귀에 도청장치, 김스틴투스카, 로큰롤라디오, 그레이프티, 강박수, 김그레, 전상규, 리플렉스 등이 힘을 실었다.

음원과 함께 공개되는 영상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고(故) 백남기의 딸 백도라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를 비롯해 전국의 집회에 참여한 시민 등 총 20여명이 손으로 직접 쓴 '길가에 버려지다' 노랫말로 구성했다.

음원은 로그인 등 절차 없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길가에 버려지다'와 마찬가지로 '길가에 버려지다' 파트2의 음원 역시 뮤직비디오 등 2차 저작물의 제작, 배포가 가능하다.

/뉴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